

【논문】

## 『논리-철학 논고』의 ‘부정적 사실’에 관하여

박정일

【주제분류】 분석철학, 논리철학, 언어철학

【주요어】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부정적 사실, 긍정적 사실, 세계, 현실, 근본 사상

【요약문】 비트겐슈타인의 『논고』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는 “긍정적 사실”과 “부정적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과 ‘세계’의 개념이 동일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포겔린과 피처는 ‘현실’이 ‘세계’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았으며, 비트겐슈타인이 2.063에서 그것들을 동일화하는 것을 실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존립하는 사태들”과 “사태들의 존립”을 동일화하는 오류를 범했을 뿐이다. 블랙과 남경희는 『논고』에서 ‘현실’과 ‘세계’가 둘 다 부정적 사실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대단히 피상적인 논의를 하고 있을 뿐, 어떤 정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또 제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논고』에서 세계에는, 또 현실에는 부정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논고』에서 ‘전체 현실’과 ‘세계’는 동일하고 외연이 같다.

우리는 이 점을 『논고』라는 텍스트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해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겔린의 주장, 즉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완벽한 용어법의 복원도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결코 옳지 않다. 더 나아가 『논고』에서 부정적 사실에 대한 논의는 “근본 사상”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경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겔린의 주장과 달리, 2.063의 언급은 매우 “깊은 체계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1.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이하 ‘『논고』’로 약칭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보통 처음 부딪히는 수수께끼는 ‘긍정적 사실’과 ‘부정적 사실’이 무엇이며, 그리하여 ‘세계’와 ‘현실’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하다: 우리는 다음의 언급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04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가 세계이다.

2.06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이 현실이다.

(우리는 사태들의 존립을 긍정적 사실, 비존립을 부정적 사실이라 부르기도 한다.)

2.063 전체 현실이 세계이다.<sup>1)</sup>

『논고』의 존재론에 따르면,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1, 1.2)이고,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2)이며, 사태는 대상들의 결합(2.01)이다. 그런데 2.06에 따르면 사태들의 존립은 긍정적 사실이다. 따라서 사실과 긍정적 사실은 둘 다 사태들의 존립이다. 그리고 2.04에 따르면,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가 세계이므로, 세계는 사실들 또는 긍정적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6에서는 현실은 긍정적 사실들과 부정적 사실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은 ‘세계’보다 더 넓은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63에 이르면 우리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미궁에 도달하게 된다. ‘현실’은 ‘세계’보다 더 넓은 개념인 것처럼 보였는데, 2.063에서는 “전체 현실이 세계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주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은 비트겐슈타인이 2.063에서 현실과 세계를 동일화한 것은 “실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최초로 표명한 학자는 아마도 그리핀(J. Griffin)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에 대한 이러한 언급들을 어떻게 해석하든지간에, 딜레마가 생겨난

1) 이 글에서 『논고』에 대한 번역은 대부분 이영철(2006)을 따르고 있다.

다.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암묵적으로, 그리고 러셀에게 보낸 편지에서 명시적으로, 요소 명제들은 항상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 편지에서, 그리고 『논고』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태는 한 요소 명제가 참일 때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사태들이 항상 긍정적이라는 것이 따라 나온다. 그런데, 사태들은 일종의 경우인 것들이다. 따라서 세계는 경우인 것들의 전부이므로, 세계는 모든 존립하는 사태들이다. 그러나 세계는 또한 사실들의 총체이다. 그러므로 사실들은 존립하는 사태들과 동일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사태들은 긍정적이므로, 마찬가지로 사실들로 그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세계는 사실들(긍정적 사실들)의 총체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2.0번 대의 마지막 명제들에 주목하면, 그것들이 주는 인상은 아주 다르다. 2.06은 ‘현실’이라는 낱말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가 듣게 되는 바 현실은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이다. 사태들의 존립은 긍정적 사실이고, 비존립은 부정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실은 긍정적 사실들과 부정적 사실들을 둘 다 포함한다. 그런데 이는 그 자체로 어떤 어려움도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두 개의 용어, 즉 ‘세계’와 ‘현실’을 사용하고 있고, 전자를 그는 긍정적인 사실들의 총체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후자를 긍정적인 사실들과 부정적인 사실들의 총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현실’은 더 포괄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난점이 2.063에서 생기는데,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현실의 전체가 세계라고 말한다. 그 등식은, 명백하게도, 완전하다. 단어 ‘전체’(‘gesamt’)는 현실이 세계보다 더 넓을 수도 있을 사소한 가능성조차도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는, 현실의 전체로서, 사실들(긍정적 사실들과 부정적 사실들)의 총체이다.

우리는 이 모순을 실수(slip)인 것으로 다룰 수 있다. 우리는 2.0번 대에서 현실과 세계를 동일화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이 그가 1번 대에서 세계를 긍정적 사실들만으로 제한했던 것을 말했다는 점을 잊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2)</sup>

이 인용문에서 그리핀은 앞에서 우리가 지적한, 외견상으로는 도출될 것처럼 보이는 모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063 이전에는 ‘현실’은 ‘세계’보다 더 넓은 개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63에서는 ‘현실’과 ‘세계’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리고 그리핀에 따르면, 이는 모순이다. 더 나아가, 그에 따르면, 2.063은 비트겐슈타인의 실수(slip)일 수 있고, 비트겐슈타인은 『논고』 1번 대에서 자신이 했던 언급을 2번 대에서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포겔린(R. J. Fogelin)은 이러한 그리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2) Griffin(1964), pp. 36-7.

같이 주장한다.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들이 비일관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몇몇 주석가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다음의 명제들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04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가 세계이다.

2.06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이 현실이다.

2.063 전체 현실이 세계이다.

문제는 투명하다. 2.04는 세계(world)를 존립하는(existing) 사태들과 동일화하고 있다. 반면에, 2.06은 현실(reality)을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과 동일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63은 최소한 세계와 현실을 동일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존립하는 사태들의 집합은 존립하는 또 존립하지 않는 사태들과 동일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텍스트에 완벽한 용어법의 일관성을 복원하는 어떤 방법도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실수(slip)가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깊은 체계적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sup>3)</sup>

포겔린은 이 인용문에서, 그리핀보다 한 술 더 떠서,<sup>4)</sup> 자신은 『논고』라는 텍스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의 용어법과 관련하여, 완벽한 용어법의 일관성을 복원하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더 나아가 그 실수는 아주 자연스러워서 무시해도 무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그리핀의 암시와 포겔린의 주장은 옳은가?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여 나는 이 글에서 다음을 보이고자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리핀이 암시하고 포겔린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2.063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실수’는 그들의 몫이다. 또한 우리는 포겔린의 주장과는 달리, 『논고』라는 텍스트에서 이와 관련된 용어를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2.063은 『논고』의 어떤 다른 중요한 언

3) Fogelin(1987), p. 13.

4) 그리핀은 비트겐슈타인이 실수를 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실제로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포겔린은 비트겐슈타인이 실수를 범했다고 단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실수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Griffin(1964), pp. 37-8.

급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체계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2. 그리핀과 포겔린이 비트겐슈타인의 ‘실수’를 거론한 것은 우리가 2.063에 이르러 모순에 봉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확하게 그 모순을 무엇이라고 파악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지적했듯이,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63 이전에는 ‘현실’이 ‘세계’보다 더 넓은 개념인 것으로 보였는데, 2.063에서는 그 양자가 동일한 개념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그리하여 포겔린은 (앞의 인용문에서) 그 모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존립하는 사태들의 집합은 존립하는 **또** 존립하지 않는 사태들과 동일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만일 포겔린이 추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면 이는 분명 모순이다. 자, 그러나 과연 이러한 포겔린의 추론은 옳은가?

포겔린의 그 추론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2.04의 “존립하는 사태들”과 2.06의 “사태들의 존립”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따라서 존립하는 사태들의 집합은 존립하는 **또** 존립하지 않는 사태들과 동일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을 때, “존립하는 사태들의 집합”은 2.04의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로부터 끌어낸 것이고, “존립하는 **또** 존립하지 않는 사태들”은 2.06의 “사태들의 존립”과 “사태들의 비존립”으로부터 끌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점은 그리핀도 마찬가지이다.<sup>6)</sup> 또한 피처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말하고 있다.

가장 분명한 대답은 다음의 두 구절에서 제시되어 있다.

- 
- 5) 글록(H. J. Glock) 또한 이와 대등한 주장을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 나쁜 것은, 또 다른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논고』는 세계를 성립하는(obtaining) 사태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현실을 사태들의 성립하고 비-성립(non-obtaining)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또한 “전체 현실이 세계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 구절들은 긍정적 사실들의 집합을 긍정적 사실들과 부정적 사실들의 집합과 동일화하는 것으로 보인다.”(Glock(1996), p.117)
- 6) 앞 절의 인용문을 보면, 그리핀은 (1) 사실과 존립하는 사태들, (2) 사실과 사태들의 존립, (3) 긍정적 사실과 사태들의 존립을 각각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1.1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

2.04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가 세계이다.

이 구절들로부터 사실들과 존립하는 사태들의 동일성이 산출된다.<sup>7)</sup>

피처는 존립하는 사태들이 사실들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2)이므로, 이제 그는 존립하는 사태들과 사태들의 존립이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둘은 동일한가? “존립하는 사태들”은 “사태들의 존립”과 동일한가? 가령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의 아름다움”과 동일한가? 또는 “세포들의 모임”은 “모여 있는 세포들”과 동일한가? 우리는 가령, 축구팀은 “축구 선수들의 모임”이라고는 말하지만 “모여 있는 축구 선수들”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신체는 “세포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모여 있는 세포들”이 신체인 것은 아니다. 전체 자연수의 집합 N은 “자연수들의 모임”이지만 “모여 있는 자연수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N이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지만 “모여 있는 자연수들”이라고는 말하지 않는가? 먼저 눈에 띄는 것은 N은 단수인 반면에, “모여 있는 자연수들”은 복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둘을 동일화하는 것은 어색하다. 마찬가지로 사실과 “사태들의 존립”을 동일화하는 것은 둘 다 단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만, 사실과 “존립하는 사태들”을 동일화하는 것은 전자가 단수이고 후자가 복수이기 때문에 어색하다. 그렇다면 “사태들의 존립”과 “존립하는 사태들”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는 “자연수들의 모임”과 “모여 있는 자연수들”이 상이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2.04, 즉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가 세계이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2.04가 뜻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의 총체가 세계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실들의 총체가 세계이다”이다. 마찬가지로 2.05, 즉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는 어떤 사태들이 존립하지 않는가를 또한 확정한

7) Pitcher(1964), p. 47.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비트겐슈타인]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는데, 부정적 사실, 또는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종류의 부정적 사실(즉 요소 명제의 (참인) 부정에 의해 진술된 부정적 사실)은 존립하지 않는 사태, 즉 비-존립의 조건에 있는 사태라는 것이다.”

다.”에서도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는 “모든 사실들의 총체”로 파악되어야 한다. 요컨대, 한 “사실”은 어떤 “사태들의 존립”이지만, “존립하는 사태들”은 문맥에 따라서는 한 사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모든 사실을 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의 경우에는 “존립하는 사태들”은 “한 사실”이 아니라 “모든 사실들”을 뜻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혹자는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이 사태들의 존립이라고 하자. 그런데 ‘사실’은 『논고』에서는 ‘대상’, ‘사태’, ‘세계’와 같이 존재론적 개념이다. 반면에 “사태들의 존립”은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실이 사태들의 존립일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는 N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N이 “모든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뜻하는 것은 “모든 자연수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전체”이다. 신체가 세포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뜻하는 것은 세포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전체이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것을 이루는) 사태들이 존립할 때 그 전체를 뜻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양자가 둘 다 존재론적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존립하는 사태들”과 “사태들의 존립”을 동일화하는 것은 매우 소박한 오류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 이 점을 분명하게 보게 되면, 그리핀과 포겔린이 주장하는 바 그 모순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 포겔린의 추론이 옳지 않다는 것, 그리하여 포겔린이 자신의 그러한 오류를 비트겐슈타인에게로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2.06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06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이 현실이다.

(우리는 사태들의 존립을 긍정적 사실, 비존립을 부정적 사실이라 부르기도 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사태들의 존립”을 “긍정적 사실”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당혹스럽게도) “사태들의 비존립”을 “부정적 사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제 우리의 의문은 이러하다: 위의 2.06은 “긍정적 사실”과 “부정적 사실”에 대한 **엄밀한 정의**인가? 그리하여 우리는 2.06으로부터 무엇이 긍정적 사실이고 무엇이 부정적 사실인지 알 수 있는가?

우리의 해석에 따르면, 사실이란 (그것을 이루는) 사태들이 존립할 때 그 전체이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사실이란 “사태들의 비존립”이므로, 부정적 사실은 “(그것을 이루는) 사태들이 비존립할 때 그 전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우리는 이 말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가령 누군가가 “축구팀은 축구 선수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하고 나서

“우리는 축구 선수들의 모임을 긍정적 축구팀, 비모임을 부정적 축구팀이라 부르기도 한다.”

라고 말했다면, 과연 우리는 “부정적 축구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가? “부정적 축구팀”은 우리의 해석에서는 “(그 팀을 이루는) 축구 선수들이 모여 있지 않을 때 그 전체”를 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축구 선수들이 모여 있지 않다는 것인지, 그리고 왜 어떤 축구 선수들이 모여 있지도 않은데도 그것을 축구팀이라고(부정적 축구팀이라고) 부르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2.06 또한 그러하다. 부정적 사실이란 사태들의 비존립이고, 이는 우리의 해석에 따르면 “(그것을 이루는) 사태들이 비존립할 때 그 전체”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태들이 비존립한다는 것인가? 또 어떤 사태들이 비존립하는데도 왜 그것을 사실이라고(부정적 사실이라고) 부르는가?

우리는 이제 이 지점에서 2.06만으로도 어떤 것이 긍정적 사실이고 또 어떤 것이 부정적 사실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책상은 갈색이다. 그렇다면 이 책상이 갈색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또 긍정적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 사실인 것은 무엇인가? 부정



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것인가?

- (1) 이 책상은 갈색이 아니다.
- (2) 이 책상은 회색이다.
- (3) 이 책상은 회색이 아니다.

여기에서 (1)에 해당되는 사실은 없다. 따라서 (1)에 해당되는 가능한 사실을 이루는 사태들은 존립하지 않는다. 이 점은 (2)도 마찬가지이다. 즉 (2)에 해당되는 가능한 사실을 이루는 사태들은 존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1)과 (2)는 거짓이다. 반면에 (3)은 참인데, (3)은 어떤 사태들, 즉 “이 책상은 회색이다”를 이루는 사태들이 존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요컨대 (1), (2), (3)은 모두 어떤 사태들이 존립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사태들의 비존립”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만 각각 거론하고 있는 “존립하지 않는 사태들”이 상이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2.06만으로는 (1), (2), (3) 중 어느 것이 부정적 사실인지 결정할 수 없다. (1), (2), (3) 모두 어떤 사태들의 비존립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06은 왜 어떤 사태들이 존립하지 않는데도 (부정적) 사실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어떤 사태들이 존립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2.06이 “긍정적 사실”과 “부정적 사실”에 대해 엄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경계하고 버려야 한다.

4. 따라서 이제 우리는 『논고』에서 “긍정적 사실”과 “부정적 사실”이 등장하는 다른 언급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논고』에서는 “긍정적 사실”은 두 번(2.06, 4.063) 나오고, “부정적 사실”은 세 번(2.06, 4.063, 5.5151) 나온다. 이제 4.063과 5.5151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진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 흰 종이 위의 검은 얼룩점; 그 얼룩점의 형태는 그 평면 위의 모든 점이 각각 흰가 검은가를 진술함으로써

기술될 수 있다. 어떤 한 점이 검다는 사실은 긍정적 사실에, 어떤 한 점이 희다(검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적 사실에 대응한다. 내가 그 평면 위의 한 점(프레게적인 진리치)을 지칭한다면, 이는 판정 받기 위해 세워진 가정에 해당된다. 등등. (4.063a)

4.063a에서는 흰 종이 위의 검은 얼룩점을 묘사하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그 얼룩점은 그 평면 위의 모든 점들에 대해서 각각 그 점이 흰지 또는 검은지를 진술함으로써 기술될 수 있다. 이때 “한 점이 검다는 사실은 긍정적 사실에, 어떤 한 점이 희다(검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적 사실에 대응한다.” 이제 이 언급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긍정적 사실과 부정적 사실을 나타내는 명제가 **모두 참**이라는 점이다. 즉 검은 점을 가리키면서, “이 점은 검다”라고 말하면 이 명제는 참이고 또 그것이 기술하는 사실은 긍정적 사실이다. 또한 흰 점을 가리키면서, “이 점은 검지 않다”(또는 “이 점은 희다”)라고 말하면 이 명제는 참이고 또 그것이 기술하는 사실은 부정적 사실이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흰 종이 위의 검은 얼룩점**을 묘사하는 상황이 서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 바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검다”는 긍정적 사실을 기술하고, “이 점은 희다”는 부정적 사실을 기술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검은 얼룩점이 있는 흰 종이에서 **흰 부분**을 묘사하는 상황이라면, “이 점은 검다”는 부정적 사실을 기술하고 또 “이 점은 희다”는 긍정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비유를 통해 (1), (2), (3) 중 어느 것이 부정적 사실을 묘사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 비유에서는 흰 종이 위의 검은 얼룩점을 묘사하는 상황에서, 검은 점을 가리키면서 “이 점은 검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묘사하는 것이 긍정적 사실이고, 부정적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 검은 점이 아니라 **하얀 점**을 가리켜야 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책상은 갈색이다”가 긍정적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이제 부정적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 책상이 아닌 **다른 사물**을 가리켜야만 할 것이다. 가령 내가 앉고 있는 의자가 회색일 때, “이 의자는 갈색이 아니다”라는 참 명제를 말하면 이 명제가 묘사하는 사실이 부정적 사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위의 비유에서는 각각의 점에 대해 “이 점은 검다”,

“이 점은 검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흰 종이 위에 있는 검은 얼룩점이 묘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상은 갈색이다”, “이 의자는 갈색이 아니다” 등등을 말하면서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이 방에 있는 갈색의 물체들**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방에 있는 회색의 물체들을 묘사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의자는 회색이다”는 긍정적 사실을 묘사하고, “이 책상은 회색이 아니다”는 부정적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1), (2), (3) 중에서 부정적 사실에 해당되는 것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논고』에서 부정적 사실이 무엇인가가 결정되는 것은 2.06이 아니라 4.063a에서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긍정적 사실과 부정적 사실을 묘사하는 명제들이 모두 참이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러한 파악이 과연 옳은지를 검증하기 위해 『논고』에서 “부정적 사실”이 세 번째로 거론된 5.5151을 살펴보기로 하자.

부정적 명제의 기호는 긍정적 명제의 기호로 형성되어야 하는가? 어째서 부정적 명제가 부정적 사실에 의해 표현될 수 없단 말인가? (가령 이렇게: “a”가 “b”에 대해 어떤 일정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aRb가 사실이 아님을 표현할 수도 있다.) (5.5151a)

5.5151a에서는 “어째서 부정적 명제가 부정적 사실에 의해 표현될 수 없단 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a”가 “b”에 대해 어떤 일정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aRb가 사실이 아님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대답이 주어져 있다. 이제 이 물음과 이 대답을 대조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a”가 “b”에 대해 어떤 일정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부정적 사실에 해당되고, 또 부정적 명제는 “aRb는 사실이 아니다”(또는 “~aRb”)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으로 “~aRb”는 “a”가 “b”에 대해 관계 R에 있지 않다는 부정적 사실을 묘사할 수 있다. 가령 “서울은 대전 남쪽에 있지 않다”는 서울은 대전 남쪽에 있지 않다는 부정적 사실을 묘사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이 대전 남쪽에 있지 않다는 부정적 사실은 “서울은 대전 남쪽에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sup>8)</sup>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해석과 분석이 옳다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이 “긍정적 사실들”과 “부정적 사실들”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것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913년에 작성된 「논리에 관한 단상들」(“Notes On Logic, September 1913”)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긍정적인 사실들과 부정적인 사실들이 있다. 만일 명제 “이 장미는 빨갛지 않다”가 참이라면, 그 명제가 지칭하는(signifies) 것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단어 “아니다(not)”의 나타남(occurrence)은 이 점을, 만일 우리가 명제 “이 장미는 빨갛다”가 지칭하는 것(signification)이 (그 명제가 참일 때)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다면, 가리키지(indicate) 않는다. 우리가 전체 명제의 지칭(signification)의 성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정과 부정된 명제, 둘 다를 통해서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반 명제들, 즉 속박 변항들(apparent variables)을 포함하는 것의 부정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부정적 사실들은 오직 원자 명제들의 부정들을 정당화할 뿐이다.) 긍정적 사실들과 부정적 사실들은 있지만, 참인 사실들과 거짓인 사실들은 없다.<sup>9)</sup>

이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적 사실은 참인 명제 가령, “이 장미는 빨갛지 않다”가 묘사하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1), (2), (3) 중에서 부정적 사실을 묘사하는 명제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 책상이 회색이 아니라는 것, 이 책상이 파랗지 않다는 것, 이 책상이 얼음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모두 부정적 사실이다.

5. 이 책상이 회색이 아니라는 것이 부정적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우리는 이제 왜 그것을 사실이라고 부르는지 대답할 수 있다. 요컨대 긍정적 사실을 묘사하는 명제가 참인 것처럼, 부정적 사실을 묘사하는 명제도 참이다. 우리는 바로 이 유사성을 주목하면서 이 책상이 회색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특히 “부정적 사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8) 혹자는 어떤 한 부정적 사실이 부정적 명제를 표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이 점과 관련된 문제는 8절에서 논의된다.

9) Wittgenstein(1961), p.94.

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책상은 갈색이거나 이 의자는 회색이다”라는 명제가 묘사하는 사실을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용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지만) “선언적 사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책상이 갈색이라면 이 의자는 회색이다”라는 명제가 묘사하는 것을 “조건적 사실”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그 명제들이 참인 한에서 그것들이 묘사하는 것은 사실들, 즉 긍정적 사실들과 유사하며, 그리하여 우리는 바로 그것들에 “사실”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다음으로 우리는 이 책상이 회색이 아니라는 부정적 사실이 “(그것을 이루는) 사태들이 비존립할 때 그 전체”와 동일하다면, 그 비존립하는 사태들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이 책상이 회색이 아니라는 것에서 그것을 이루는 존립하지 않는 사태들은 이 책상이 회색이라는 것을 이루는 사태들이다. 이 책상이 회색이라는 것을 이루는 사태들은 존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대답은 다음의 물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책상이 회색이라는 것은 도대체 사실인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루는 “사태들”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사실상 이 책상이 회색이라는 것은 긍정적 사실도 아니고 부정적 사실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책상은 회색이다”는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자는 이 책상이 회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는 사태들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기 1914-1916』(이하, ‘일기’)로 약칭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한 그림이 앞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경우가-아닌-것(was-nicht-der-Fall-ist)을 묘사한다면, 이는 오직 그것이 경우가 아니라는 것(*that which is not the case*)을 묘사함으로써만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말하자면 “**그렇게** 그것은 그렇게 **않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않은가?**”라는 물음에는 그저 긍정적인 명제가 그 대답이다.<sup>11)</sup>

10) 물론 나중에 다시 논의되겠지만, 그러한 사실들—부정적 사실, 선언적 사실, 조건적 사실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들의 **논리**는 대표될 수 없다.”(4.0312)

물론 우리가 한 부정적 명제를 지니게 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은 가능해야만 한다: “경우가 아닌 것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물론, 다시 한 명제일 뿐이다. (이 언급은 불완전하다.)<sup>12)</sup>

따라서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이 책상은 회색이 아니다”에 대해서 “경우가 아닌 것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한 대답은 “이 책상은 회색이다”라는 명제이다. 그런데 “이 책상은 회색이다”는 『논고』에 따르면 하나의 논리적 그림이다. 그리하여 그 논리적 그림은 어떤 가능한 사태들을 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가능한 사태들에 대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가능한 사태들이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3.001 “어떤 한 사태가 생각될 수 있다”가 뜻하는 것은, 우리는 그 사태에 관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sup>13)</sup>

따라서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책상은 회색이 아니다”가 묘사하는 부정적 사실에서 존립하지 않는 사태들이 무엇이나 하는 물음에 대해 “이 책상은 회색이다”라는 명제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사태들 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6. 그렇다면 『논고』에서 부정적 사실은 이 세계에 실재하는가? 또한 부정적 사실은 현실에 존재하는가? 더 나아가 ‘세계’와 ‘현실’은 동일한가 아니면 후자가 전자보다 더 넓은 개념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첫째, 부정적 사실은 세계에는 실재하지 않지만 현실에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현실’은 ‘세계’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둘째,

11) Wittgenstein(1961), p.23.

12) Wittgenstein(1961), p.32.

13) 비트겐슈타인은 이 언급에 해당되는 것을 『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사태가 생각 가능하다”(“상상 가능하다”(vorstellbar, imaginable))는 것은, 우리는 그 사태에 관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Wittgenstein(1961), p.24.)

‘현실’과 ‘세계’는 동일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현실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부정적 사실은 **실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전체 현실’과 ‘세계’는 동일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현실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부정적 사실은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대답은 비트겐슈타인이 2.063에서 현실과 세계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을 때 실수를 범했다고 보는 견해와 병행하게 될 것이다. 포플린의 견해에 따르면 현실과 세계는 동일한 개념일 수 없다. 현실은 세계보다 더 넓은 개념이어야 한다. 피처 또한 이 견해를 옹호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면 세계는 모든 긍정적인 원자적 사실들, 즉 존립의 상태에 있는 모든 존립하는 사태들을 포함한다. 현실은 더 넓고, 모든 긍정적 사실들과 부정적 사실들, 즉 각각 존립의 상태와 비존립의 상태에 있는 모든 존립하는 사태들과 비-존립하는 사태들을 포함한다. 만일 이 해석이 옳다면, 비트겐슈타인은 분명하게도 비실재적인(nonactual) 사태들에 그림자 같은 종류의 존재(being)를 부여한 것이다. 그것들[비실재적 사태들]에 완전한 존재(existence)가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비존재라는, 한갓 가능성이라는 이상한 영역에서의 모종의 존립(subsistence)을 부여한 것이다. 요컨대 비트겐슈타인의 언급은, 이렇게 보이는데, 다음을 함축한다. 사태들—앞으로 주어질 이유로 해서, 모두 긍정적인 사태들—은 다음 두 영역 중의 하나에 거주할 수 있다. 존립의 영역이거나 비존립의 영역이거나인데, 전자의 경우 그것들은 긍정적인 원자적 사실들이고 세계의 부분들이다. 후자의 경우 그것들은 세계의 부분들이 아니고, 단지 현실 일반의 부분들이다.<sup>14)</sup>

여기에서 피처는 비트겐슈타인이 비실재적 사태들에 대해 “비존재라는, 한갓 가능성이라는 이상한 영역에서의 어떤 그림자 같은 종류의 존재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비트겐슈타인은 비실재적 사태들에 대해 어떤 종류의 존재를 부여하였는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책상은 회색이 아니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책상은 회색이다”라는 명제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바 가능한 사태들이 존립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바

14) Pitcher(1964), pp. 47-8.

그러한 가능한 사태들에 대해서 모종의 존재를 부여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존립하지 않는 사태들에 대해서 모종의 존재를 부여하였다면, 가령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것에 대해 모종의 존재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것을 상상할 때 그것에 어떤 존재를 보통 부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대답은 현실과 세계가 모두 긍정적 사실뿐만 아니라 부정적 사실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하여 그 외연들이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가령 블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서 가장 새로운 점은 현실(die Wirklichkeit)이라는 당혹스러운(puzzling)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2.04와 2.06의 동격(apposition)은 ‘세계’와 ‘현실’ 간의 어떤 의도된 대조를 암시하고 있다. 전자는 원자적 사실들의 총체로 보이는 반면, 후자는 다른 것들(어떤 원자적 사실들의 ‘존립’)의 실재화(actualization)뿐만 아니라 어떤 원자적 상황들(situations)의 비-실재화(non-actualization)(어떤 원자적 사실들의 ‘비존립’)에 의해 구성된다. 세계는, 후자는 이렇게 말하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데, ‘전체 현실’의 긍정적인 핵심이다. 불행하게도, 2.063은 이러한 그럴듯한 주석(gloss)을 반박한다. 2.05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옳은 대답은 ‘세계’와 ‘전체 현실’이 동의어라는 것이다. 세계는 부정적 측면들과 긍정적 측면들을 둘 다 지니고 있고, 이것들 중 전자는 ‘전체 현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강조된다. ‘현실’의 사용은 나중에 비-요소 명제들의 진리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특히 적절하다.<sup>15)</sup>

여기에서 블랙은 『논고』의 세계가 부정적 측면들과 긍정적 측면들을 둘 다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아마도 옳은 대답은 ‘세계’와 ‘전체 현실’이 동의어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가 제시하는 것은 “2.05의 관점”이다. 즉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는 어떤 사태들이 존립하지 않는가를 또한 확정한다.”(2.05)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2.05가 ‘세계’와 ‘전체 현실’이 동의어라는 것의 근거일 수 있는가? 블랙은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점은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블랙의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논의

15) Black(1964), pp. 69-70.



는 그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sup>16)</sup>

이 점은 남경희(2005)에서도 확인된다. 남경희는 “세계는 긍정 사실과 부정 사실들의 총체”이며, 부정 사실은 “실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태가 부재함도 실재의 일부인가? 사태의 부재는, 즉 부정 사실은 세계의 일부이므로 분명 실재한다. 그러면 부재하는 사태, 가령 “ $5 + 7 = 13$ ”은 세계의 일부로서 실재적인가? 그렇지 않다. 사태의 부재는, 즉 부정 사실은 부재하는 사태로부터 구분되어야 한다. 부재하는 사태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이기는 하나 부재하므로, 세계의 일부가 아니다. “ $5 + 7 = 12$ ”이라는 긍정 사실은 “ $5 + 7 \neq 13$ ”이라는 부정 사실을, 그리고 “ $5 + 7 = 13$ ”이라는 사태가 부재함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 $5 + 7 \neq 13$ ”이라는 부정 사실과 “ $5 + 7 = 13$ ”이라는 사태가 부재함은 실재하는 사실의 일종이나, 부재하는 사태 “ $5 +$

- 16) 블랙이 “2.05의 관점”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그리핀의 생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긍정적인 사실들과 부정적인 사실들은 종류에서 다르다. 긍정적인 사실들을 고려해 보자. 세계는 그것들의 총합, 즉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이다. 물론, 우리가 모든 존립하는 사태들을 모을 때 우리는 세계를 지니게 된다.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긍정적 사실들의 전체는 전체 세계이고, 단일한 긍정적 사실은 세계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부정적 사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긍정적 사실들의 한 집단에 부정적 사실들의 전체 집합을 덧붙이면, 이는 심지어 하나의 긍정적 사실을 더 덧붙이는 것과 전혀 같지 않다. 부정적 사실들은 세계의 부분이 아니다-내가 위에서 사용했던 ‘부분’의 의미에서는 말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사실들은 일단 우리가 긍정적 사실들의 한 집합을 갖게 되면 우리가 부정적 사실들의 한 집합을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부정적 사실들이 긍정적 사실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세계가 긍정적 사실들의 총체라고 말할 때, 이는 세계가 존립하는 사태들에 의해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가 세계는 긍정적 사실들과 부정적 사실들을 둘 다 포함한다고 말할 때, 이는 그것들의 분리 불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들이 존립하는 사태들로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긍정적 사실들과 부정적 사실들이 분리 불가능하다는 것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의 세 가지 주장은 양립 불가능할 필요는 없다.”(Griffin(1964), pp. 37-8) 그러나 이러한 그리핀의 생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한 ‘분리 불가능성’을 아무리 거론한다고 해도, 이와 관련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이 지점에서 이와 관련된 그리핀의 전체 생각이 매우 어정쩡한 것임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는 한편으로는 비트겐슈타인이 실수를 범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와 함께, 블랙의 주장과 유사한 것도 용인하고 있고, 또 위의 세 언급(2.04, 2.06, 2.063)이 양립 가능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참고: Griffin(1964), pp. 36-8

7=13”은 비실재적이다. 부정 사실과 부재하는 사태는 전혀 다르다. 전자를 기술하는 명제는 진리인 의미 명제로서 세계의 일부임에 반해, 후자를 묘사하는 것은 의미는 있으나 허위인 명제로서 세계의 일부가 아니다.<sup>17)</sup>

남경희는 “부정 사실은 세계의 일부이므로 분명 실재적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도대체 비트겐슈타인이 『논고』 어디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남경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애초에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논의 또한 블랙과 마찬가지로 곁돌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블랙과 남경희의 주장이 명백하게 오류라는 것은 그저 『논고』의 “근본 사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나의 근본 사상은, “논리적 상황들”은 대표하지를 앓는다는 것이다. 즉 사실들의 논리는 대표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4.0312b) 다시 말해 ‘~’, ‘∨’, ‘⊃’와 같은 논리적 상황들은 이 세계에 실재하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상은 회색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있을 뿐이지, ‘~’이 가리키는 것을 지니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는 사실은 그저 “이 책상은 갈색이다”가 묘사하는 사실일 뿐이며, 다시 말해 긍정적 사실일 뿐이다. 요컨대 부정적 사실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책상은 회색이 아니다”에서 ‘아니다’, 즉 ‘~’이 대표하는 것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하는데, 이는 『논고』의 “근본 사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sup>18)</sup>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비로소 이 글의 서두에서 제기한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 다시 문제가 되는 『논고』의 언급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04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가 세계이다.

2.06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이 현실이다.

(우리는 사태들의 존립을 긍정적 사실, 비존립을 부정적 사실이라 부르기도 한다.)

17) 남경희(2005), 77쪽.

18) 그렇기 때문에 블랙과 남경희는 결코 그러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어떤 정당한 근거도 제시할 수 없다.

## 2.063 전체 현실이 세계이다.

자, 이 세 언급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2.063 이전에는 ‘현실’은 ‘세계’보다 더 넓은 개념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2.06, 즉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이 현실이다”라고 말한 후, 2.063에서 “전체 현실이 세계이다”라고, 즉 ‘전체 현실’과 ‘세계’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명백하다. 즉 부정적 사실이 세계에, 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63에서와 같이 전체 현실이 세계와 동일하려면, 세계는 (긍정적) 사실들의 총체이므로, 부정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추론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 부분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실들의 총체가 세계이다. 그리고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태들의 존립을 긍정적 사실, 사태들의 비존립을 부정적 사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하여 현실에는 긍정적 사실과 부정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현실은 세계와 같다. 그리고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는 어떤 사태들이 존립하지 않는가를 또한 확정한다.”(2.05) 따라서 현실에서는 사태들은 존립하거나 존립하지 않거나 할 뿐이다.”

7.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논고』에서는 부정적 사실이 세계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세계와 전체 현실은 동일하다는 세 번째 대답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은 다음과 같다. 만일 부정적 사실이 세계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부정적 사실”에 대해 세 번 (또는 세 번씩이나) 언급했는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 그는 무엇 때문에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2.06, 4.063, 5.151에서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논고』의 집필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혼동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 “부정적 사실”에 대한 논의가 곧바로 『논고』의 근본 사상에 대한 논의와 직결되며, 『논고』의 근본 사상을 서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부정적 사실”에 대한 논의를 경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근본 사상에 도달한 때는 1914년 12월 25일이었다. (『논고』는 1918년 여름에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는 그 근본 사상에 도달하기 약 두 달 전인 1914년 10월 18일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충 말하자면, 어떤 명제든 도대체 뜻을 지닐 수 있기 전에, 논리적 상황들은 의미(Bedeutung, 지시체)를 지녀야만 한다.” 이 두 달 동안 그의 생각은 중요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약 두 달 전에는 논리적 상황들은 의미(Bedeutung, 지시체)를 지녀야만 한다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난 후에는 논리적 상황들은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가 가장 고민했던 문제는 부정적 사실과 관련된 것이었다.

부정적 사실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변민은 1914년 11월 25일 『일기』에 잘 나타나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에게 전혀 평화를 주지 않는 것은 이원론(Dualismus), 긍정적 사실들과 부정적 사실들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원론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인가?<sup>19)</sup>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긍정적 사실들과 부정적 사실들의 이원론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이원론이란 무엇인가? 그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렇다: 긍정적 사실은 일차적이고 부정적 사실은 이차적인가, 아니면 그것들은 동일한 수준에 있는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사실들  $p \vee q$ ,  $p \supset q$ , 등은 어떠한가? 이것들은  $\sim p$ 와 동일한 수준에 있지 않은

---

19) Wittgenstein(1961), p.33.

가? 그러나 그렇다면 모든 사실들은 동일한 수준에 있어야만 하지 않는가? 그 물음은 실로 이렇다: 긍정적 사실들 외에도 사실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경우가 아닌 것과 그것 대신에 경우인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sup>20)</sup>

즉 긍정적 사실들 외에도 부정적 사실이 (이차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긍정적 사실들과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원론인 것이다. 이제 그 이원론이 성립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이 책상은 갈색이다”라는 긍정적 사실에 대해서 “이 책상은 회색이 아니다”가 동일한 수준에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 책상은 회색이 아니거나 이 의자는 갈색이다”나 “이 책상이 회색이 아니라면 이 의자는 갈색이다”와 같은 것에 해당되는 사실들도 모두 동일한 수준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 책상은 회색이 아니거나 지구는 정육면체다”와 같은 것에 해당되는 사실이 존재하는가? 비트겐슈타인은 다음 날(11월 26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두려워했던 긍정과 부정이라는 그 이원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x)φx 등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기 때문이다.<sup>21)</sup>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그 이원론을 부정하고 있다. 즉 그는 11월 25일의 물음, 즉 “긍정적 사실들 외에도 사실들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의 언급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상 나는 위의 언급만으로 비트겐슈타인이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다만 이 지점에서 분명한 것은 (x)φx를 어떤 연언 명제로 이해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라는 논리적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논리적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긍정적 사실인지 부정적 사실인지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책상은 갈색이고 이 의자는 갈색이 아니다”나 “이 책상은 갈색이거나 이 책상은 회색이 아니다”는 긍정적 사실도 묘사하지 않고 부

20) Wittgenstein(1961), pp. 32-3.

21) Wittgenstein(1961), p.33.

정적 사실도 묘사하지 않는다.

8. 그러면 이제 11월 26일의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추정하기 위해, 그리고 『논고』의 근본 사상에 도달하기 위해 왜 부정적 사실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

먼저 우리는 『논고』의 다음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제 기호는 하나의 사실이다.”(3.14b) 상징이 아니라 기호로서의 명제, 즉 명제 기호는 하나의 사실이다. 그리고 “오직 사실들만이 뜻을 표현할 수 있고, 이름들의 집합은 그렇게 할 수 없다.”(3.142) 그리하여 파리 법정에서 재현된 여러 모형들, 즉 모형 자동차, 모형 건물, 모형 길 등은 자동차 사고를 묘사할 수 있다. 요컨대 그러한 모형들이나 명제 기호와 같은 사실들은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제 기호나 모형들뿐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 자체들도** 뜻을 표현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실을 뜻을 표현하는 기호로 **간주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비트겐슈타인은 『일기』에서 1914년 11월 24일과 그 다음날에 각각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부정적 명제의 기호는 긍정적 명제의 기호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는가?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왜 부정적 명제는 부정적 사실에 의해 표현될 수 없어야 하는가? 이는 마치 우리가 비교의 대상으로서 자 대신에 자의 밖에 있는 공간을 취하는 것과 같다.<sup>22)</sup>

물론 한 기호로서 역할을 하는 그 부정적 사실(Tatbestand)은 그것을 다시 표현하는 명제 없이도 완벽하게 잘 존재할 수 있다.<sup>23)</sup>

11월 25일의 생각, 즉 부정적 사실이 완벽하게 잘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11월 26일에 포기되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되었다. 소위 긍정적 사실과 부정적 사실이라는 이원론은 없으며, 세계에는 오직 사실들, 즉 긍정

22) Wittgenstein(1961), p.32.

23) Wittgenstein(1961), p.32.

적 사실들만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11월 25일의 생각에서 위의 인용문은 매우 중요한데, 그는 “한 기호로서 역할을 하는 그 부정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즉 사실이, 특히 부정적 사실이 기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11월 26일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생각은 『논고』 5.5151에서 다시 집약해서 나온다.

부정적 명제의 기호는 긍정적 명제의 기호로 형성되어야 하는가? 어쩌서 부정적 명제가 부정적 사실에 의해 표현될 수 없단 말인가? (가령 이렇게: “a”가 “b”에 대해 어떤 일정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aRb가 사실이 아님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은 여기서도 역시 부정적 명제는 긍정적 명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긍정적 명제는 부정적 명제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5.5151)

가령 서울이 대전의 남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서울은 대전의 남쪽에 있지 않다”라는 부정적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사실에서

## A B

A가 B의 오른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A는 B의 오른쪽에 있지 않다”는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A는 B의 왼쪽에 있다”라는 명제로 묘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저 사실, 즉 “A B”에는 논리적 상황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하나의 사실을 기호로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A가 B의 오른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곧 “A B”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실은 그저 “A B”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가령 p가 논리적 상황이 없는 명제 기호일 때,  $\sim p$ 는 ‘ $\sim$ ’이라는 논리적 상황을 지니고 있다. 이는 ‘ $\sim$ ’에 대한 우리의 뜻 있는 사용, 또는 논리-구문론적 사용에 따라 우리에게 의해 결정된다. 이제 “A B”라는 사실을 기호로 파악하기로 하자. 그러면 우리의 논리-구문론적 사용에 따르면, 그것은 ‘ $\sim$ ’을 지니고 있지 않다! 『논고』의 “근본 사상”은 이렇게 해서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5.5151b를 해명해 보자. “그러나 실은 여기서도 역시 부정적 명제는 긍정적 명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5.5151b) 먼저 “이 책상은 갈색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이 책상은 갈색이다”라는 명제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앞의 예에 따르면, 부정적 명제는 “A는 B의 오른쪽에 있지 않다”이다. 이 경우 긍정적 명제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A는 B의 오른쪽에 있다”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A는 B의 오른쪽에 있지 않다”는 “A는 B의 오른쪽에 있다”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5.5151b에서 의도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이제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긍정적 명제가 “A는 B의 왼쪽에 있다”라는 것이다.

과연 “A는 B의 오른쪽에 있지 않다”는 “A는 B의 왼쪽에 있다”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바로 이 물음과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은 1914년 11월 26일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긍정적 명제가 부정적 명제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쨌든 그 긍정적 명제의 원형은 그 부정적 명제에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가?

~aRb와 ~bRa 간의—우리가 어떤 가능한 표기법에서도 하듯이—구분을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표기법에서든 부정적 명제에서 논항과 논항자리 간의 어떤 특정한 연관성을 전제한다. 이 연관성은 관련된 긍정적 명제의 원형이다.<sup>24)</sup>

이제 “A는 B의 왼쪽에 있다”를 ALB로 나타내고, “A는 B의 아래에 있지 않다”를 ~AUB로 나타내기로 하자. 그러면 ALB의 원형은 xRy이다. 마찬가지로 ~AUB의 원형은 ~xRy이다. 이제 그 긍정적 명제의 원형 xRy는 그 부정적 명제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A는 B의 아래에 있지 않다”는 “A는 B의 왼쪽에 있다”를 통하여 이 긍정적 명제의 원형 xRy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24) Wittgenstein(1961), p.33.



9.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논고』에서 “긍정적 사실”과 “부정적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과 ‘세계’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문제 삼았다. 포겔린, 피처는 ‘현실’이 ‘세계’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았으며, 비트겐슈타인이 2.063에서 그것들을 동일화하는 것을 실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존립하는 사태들”과 “사태들의 존립”을 동일화하는 오류를 범했을 뿐이다. 블랙과 남경희는 『논고』에서 ‘현실’과 ‘세계’가 둘 다 부정적 사실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대단히 피상적인 논의를 하고 있을 뿐, 어떤 정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또 제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논고』에서 세계에는, 또 현실에는 부정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논고』에서 ‘전체 현실’과 ‘세계’는 동일하고, 외연이 같다.

우리는 이 점을 『논고』라는 텍스트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해명하였다. 그러므로 포겔린의 주장, 즉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완벽한 용어법의 복원도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결코 옳지 않다. 더 나아가 『논고』에서 부정적 사실에 대한 논의는 “근본 사상”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경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겔린의 주장과 달리, 2.063의 언급은 매우 “깊은 체계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투 고 일: 2013. 10. 17.  
 심사완료일: 2013. 11. 06.  
 게재확정일: 2013. 11. 07.

**박정일**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육연구소

## 참고문헌

- 남경희, 『비트겐슈타인과 현대 철학의 언어적 전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 비트겐슈타인, 이영철 옮김, 『논리-철학 논고』, 책세상, 2006.
- Black, M., *A Compan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1964.
- Fogelin, R. J., *Wittgenstein*, seco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1987.
- Glock, H., *A Wittgenstein Dictionary*, Blackwell Publishers Inc., 1996.
- Griffin, J., *Wittgenstein's Logical Atom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Pitcher, G.,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1964
- Wittgenstein, L., *Notebooks 1914-1916*, translated by G. E. M. Anscombe,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and Evanston, 1961.
- \_\_\_\_\_,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lated by C. K. Ogden,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Boson and Henley, 1922.

## ABSTRACT

On the Negative Facts of the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Park, Jeong-il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related to the *Tractatus* is the definition of ‘positive facts’ and ‘negative facts’ and whether the concept of *world* is identical with that of reality. Fogelin and Pitcher regarded that the concept of *reality* is wider than that of *world* and claimed that Wittgenstein made a slip in identifying them at 2.063. However, they made nothing but a fallacy in identifying “existent state of affairs” with “the existence of state of affairs”. Black and Nam claim that the concept of reality is identical with the concept of *world* in the *Tractatus* because both of them contain negative facts. But their arguments are too superficial to offer a valid ground for their arguments. As a result, the concept of *world* in the *Tractatus* is identical with that of *total reality* because there are no negative facts - not only in *world* - but also in *reality*.

Furthermore, we can elucidate and solve our problems clearly on the basis of the *Tratatus* text. Hence, Fogelin’s insistence that he does not think “that there is any way to restore perfect terminological consistency to the text” can never be justified. And unlike Fogelin’s insistence, 2.063 has a very “deep systematic importance” because the investigation of negative facts was a very crucial route to the “fundamental thought” of the *Tractatus*.

**Keywords:**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Positive Facts, Negative Facts, World, Reality, Fundamental Thought